

# 멀티버스 Multi 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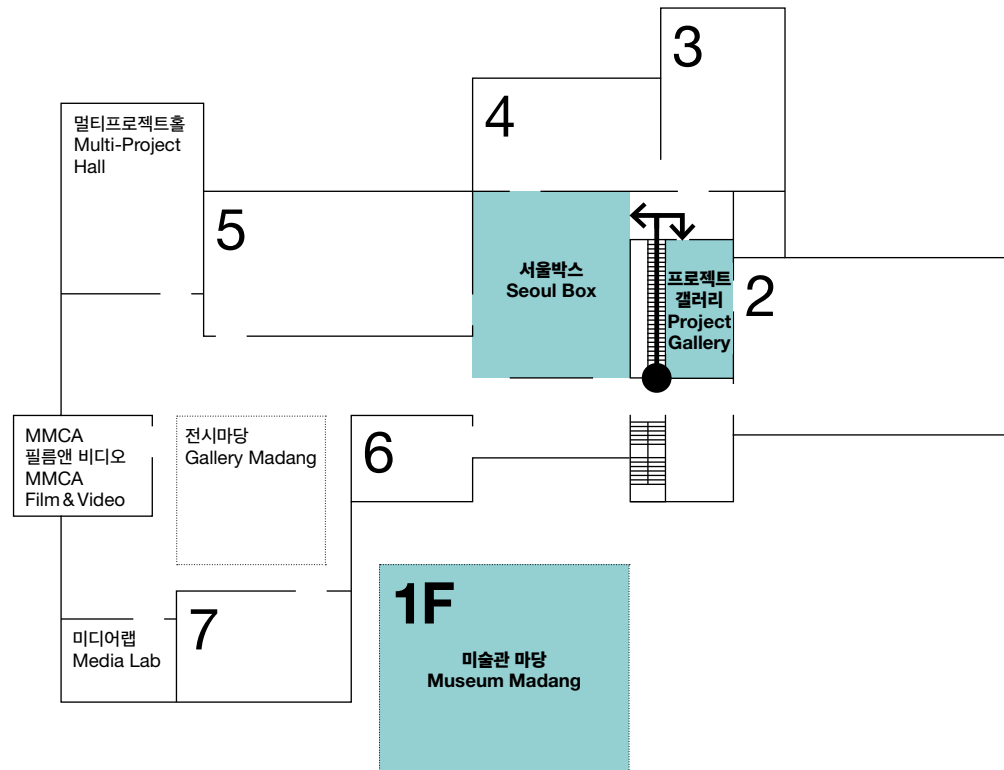
MMCA  
Performing  
Arts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  
MMCA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갤러리, 서울박스 등  
MMCA Seoul  
Project Gallery, Seoul Box, etc.  
2021.2.12.-2021.12.5.





지하1층에서 전시가 시작됩니다.  
The exhibition starts on B1F.

## 월별 프로그램 Monthly Program

2월 12일 – 3월 28일

February 12 – March 28

권하윤

Kwon Hayoun

〈잠재적인 마법의 순간을  
위한 XX번째 시도〉

*XXth Attempt  
towards the  
Potential of Magic*

3월 16일 – 4월 16일

March 16 – April 16

서현석

Seo Hyun-Suk

〈X(무심한 연극)〉

*X(Indifferent  
Spectacle)*

5월 14일 – 8월 1일

May 14 – August 1

안정주/전소정

An Jungju/  
Jun Sojung

〈기계 속의 유령〉

*The Ghost in  
the Machine*

서울박스  
5월 14일 – 8월 1일  
(설치)

Seoul Box  
May 14 – August 1  
(Installation)

프로젝트 갤러리  
5월 14일 – 6월 13일  
(단체널비디오)

Project Gallery  
May 14 – June 13  
(Single channel video)

6월 11일 – 9월 24일

June 11 – September 24

김치앤칩스

Kimchi and Chips

〈헤일로〉

*Halo*

미술관 마당  
6월 11일 – 9월 24일

Museum Madang  
June 11 – September 24

〈응시〉

*Gaze*

프로젝트 갤러리  
6월 29일 – 8월 8일

Project Gallery  
June 29 – August 8

8월 – 9월

August – September

정금형

Jeong Geumhyung

〈장난감 프로토타입〉

*Toy Prototype*

10월 – 12월

October – December

후니다 킴

Hoonida Kim

〈디코딩 되는  
랜즈케이프〉

*Landscape  
being Decoded*



##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1

“우주(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이라 부르는)는 부정수 혹은 무한수로 된 육각형 진열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 보르헤스, 「바벨의 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는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다양한 형식의 예술과 기술을 통해 질문하고 사유해보는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러한 기술과 동시대 예술이 제안하는 시각성, 시간성, 신체성, 공간성 등을 실험해 볼 예정이다. 권하윤, 김치앤칩스, 서현석, 안정주/전소정, 정금형, 후니다 김까지 총 6팀의 작가가 참여하며, 이들은 실제와 유사한 지각 경험을 제공하는 최근의 몰입형 기술(VR), 인간의 물리적 운동 능력을 대체하려는 로봇, 우리의 학습과 추론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 그리고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하고 주행을 계획하고 제어하는 자율주행 기술(LiDAR 센서나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신작을 제작한다.

이번 다원예술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멀티버스(Multiverse)’이다. 우리 우주 외에 여러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다중우주론은 물리학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SF 소설이나 영화 등의 대중 문화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모든 가능한 우주를 생각해 보는 멀티버스는 ‘실체’에 대한 질문이자, 세계에 대한 관점 변화를 의미한다.

우주(UNI-verse)라는 단어에는 ‘유일함’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멀티버스는 그 자체로 모순이지만 최근의 물리학과 여러 최첨단 기술은 “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실체의 전부가 아닌, 더 크고 은밀한 어떤 실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양자역학은 동일하지만 다른 역사를 가진 중첩되지만 어긋나있는 여러 우주, 심지어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평행 우주로 설명한다. 기술의 발전은 인공 의식(새로운 감각과 또 다른 주체)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되는 환경(시뮬레이션 우주)이 불가능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예술 역시 비슷하다. 오랜 기간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왔고, 새로운 감각과 인식의 (불)가능성을 실험해왔으며, 늘 고정된 주체를 의심해왔다. 6작가의 월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평행한 우주를 형성하고, 허구를 실재하게 하며,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세계와 세계의 관계를 묶으며, 실체를 추상적인 관념 세계에서 구체적인 기술/예술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다. 멀티버스는 다원주의자의 우주이며, 기술과 예술은 여러 세계를 잇는 마디일 것이다. 물론 여러 우주는 결함과 변칙을 드러내고, 기술과 예술은 세계 간의 간극과 이음새를 숨기지 않는다.

## MMCA Performing Arts 2021

“The universe (which others call the Library) is composed of an indefinite and perhaps infinite number of hexagonal galleries.”

— Jorge Luis Borges, *The Library Of Babel*

*MMCA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is an attempt to bring in various forms of art and technology as a means of questioning and pondering upon the radical changes of today's society propell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actively utilizing or critically approaching some of the latest technologies, the project will experiment with key issues of contemporary art, such as visibility, temporality, physicality, and spatiality. The six artists taking part in the project—Kwon Hayoun, Kimchi and Chips, Seo Hyun-Suk, An Jungju/Jun Sojung, Jeong Geumhyung, and Hoonida Kim—will present new productions adopting various technologies; immersive technology(VR) that offers a perceptive experience close to the reality; robots that substitute the kinetic capacity of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AI) that surpasses a human's learning and reasoning abilities; and self-driving technology (LiDAR sensor and self-driving algorithm) that recognizes the driving condition and thereby plans and controls the drive by itself.

This year, the keyword of the MMCA Performing Arts program is “Multiverse.” After i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field of physics, the multiverse theory, which postulates the actual existence of multiple universes besides our own, has become a term frequently used in SF novels and films. The theory's supposition of every possible universe leads to the question of “reality,” and suggests a change in our perspective of the world.

As the word “universe” already contains the idea of “singularity” and “totality,” the term multiverse is in and of itself a contradiction. However, contemporary physics and advanced technology reveal that the universe as we know it is by no means the whole, it is only one component of a far grander, perhaps far stranger, and mostly hidden, reality. Quantum mechanics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parallel universe, implying that identical universes with different historical trajectories can coexist, or various universes can overlap or be out of joint. Even “multiples of myself” can exist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estifies that artificial consciousness (possessing a different set of subjectivity and perception) or a perfectly simulated environment (the simulated universe) are no longer absolute impossibilities.

Art is very much alike, in the sense that it has for a very long time invented multiple universes, experimented with the possibilities and impossibilities of new perception and cognition, and raised doubts about fixed subjectivity. Unfolding as monthly presentations of these six artists, the project aims to create a parallel universe in an attempt to summon the virtual to the actual, to reveal the limits of our reason by presenting matters that can only be perceived through sensory organs, to create a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worlds, and to bring down the notion of “reality” from its abstract and idealist world to the concrete world of technology and art. The multiverse is a pluralist's universe. Here, art and technology function as the joint that connects different worlds. As joints, technology and art will not only connect but also reveal the gaps between the worlds, each filled with its own deficiencies and anomalies.



## 안정주 / 전소정

(설치) 서울박스 | 2021. 5. 14.(금) – 8. 1.(일)  
(단체널비디오) 프로젝트 갤러리 | 2021. 5. 14.(금) – 6. 13.(일)

안정주는 대중매체나 일상 등에서 채집한 사운드와 이미지를 변형, 변주, 반복하여 독자적인 서사구조의 영상 작업을 선보여왔다. 전소정은 비선형적 시공간을 가설하여 역사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하거나 물리적 경계의 전환이 일상의 감각에 침투하는 경험을 다루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독자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이들은 과거 p.2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성 콜렉티브를 구성하여 «장미로 엮은 이 왕관»(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을 진행하기도 했다. 때로는 ‘검은 밤’이라는 밴드 형식을 통해 음악과 시각 언어 사이 모종의 정치적 가능성을 «허구의 마찰 *Fictional Frictions*»(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광주, 2018), «검은 밤, 비디오 나이트»(d/p, 서울, 2018) 등을 통해 같이 탐색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동 작업은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동맹이기보다는, 각자가 형성한 기존의 테두리 너머를 살피기 위해 서로의 눈을 빌고, 감각을 동원하는 자생의 행위에 가깝다. 그리고 언어의 교환 속에 질문을 덧붙임으로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 An Jungju / Jun Sojung

(Installation) Seoul Box | (Fri.) May 14 – (Sun.) August 1, 2021  
(Single channel video) Project Gallery | (Fri.) May 14 – (Sun.) June 13

An Jungju transforms, variates, fragments, and loops sounds and images collected from mass media and everyday life, creating video works with a distinctive narrative structure. Jun Sojung constructs nonlinear time-space dimensions to stir up new awareness on the history and the present, or deals with the experience when material borders shift and penetrate our daily senses.

The artists have actively held solo projects, but have also collaborated under the project name p.2,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This Rose-garland Crown* (Atelier Hermes, Seoul, 2015). At times, they form a band under the name *Black Night* to explore the political possibilities between music and visual language, as in the cases of *Fictional Frictions* (HIAP at the Gwangju Biennale Pavilion Project, Gwangju, 2018) and *Black Night, VIDEO NIGHT* (d/p, Seoul, 2018).

Their collaborative work is less of a technical partnership to solve a given mission, but more an autogenous effort to draw on each other's senses to be able to explore what is beyond each one's established boundaries. It is also a methodology of finding new pathways through the act of exchanging words and adding questions.

## 〈기계 속의 유령〉

2021, 설치, 단체널비디오, 가변크기.

〈기계 속의 유령〉은 미술관을 무대로 일어나는 일종의 연극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설된 무대를 이루는 구조와 사물들,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CCTV와 정해진 시각에 구조 사이를 유영하는 AI 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치 미술관이라는 신체의 표피 아래 존재하는 기관들, 즉 근육과 혈관, 장기와도 같다. 사물의 움직임, 이를테면 빛을 반사하고 투과하여 벽에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내는 흔들리는 필름, 수직 낙하 운동으로 공간과 공명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공기주머니, 투명한 피부 아래 차오르는 안개로 부피를 드러내는 누워있는 조각, 선풍기 바람에 역동적인 운동성을 가시화하는 선풍기 재료, 작은 생태계를 지탱하는 산소의 울림을 사운드로 증폭하는 스피커는 가시적 세계 너머의 실체를 밝히며, 감각의 전이와 연속 안에서 공감각적 경험 차원의 시공을 구축한다.

이를 관찰하는 CCTV와 AI 드론의 시선은 여기에 새로운 층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무대의 바깥에서 눈앞의 현상을 지켜보아야만 하던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 타자의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속도와 높이, 각도를 달리한 기계들의 시점은 인간의 시지각적 능력을 초월하고, 이들이 촬영하고 전송하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구조 안, 미처 닿을 수 없는 세계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기계들은 구조와 사물 사이를 비추며 이미지를 추출하고 송출하여 시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공의 한계를 벗어난 어딘가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 인간 지각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해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레이스에 관객 스스로 작동하지 않던 다른 감각을 동원하여 개입하길 요구한다.

(AI 드론 비행) 2021. 5. 14.(금) – 6. 12.(토)  
14시 – 18시 (화, 목, 금) 매 시간 30분 시작  
14시 – 21시 (수, 토) 매 시간 30분 시작  
비행시간 | 8분 내외

## *The Ghost in the Machine*

2021,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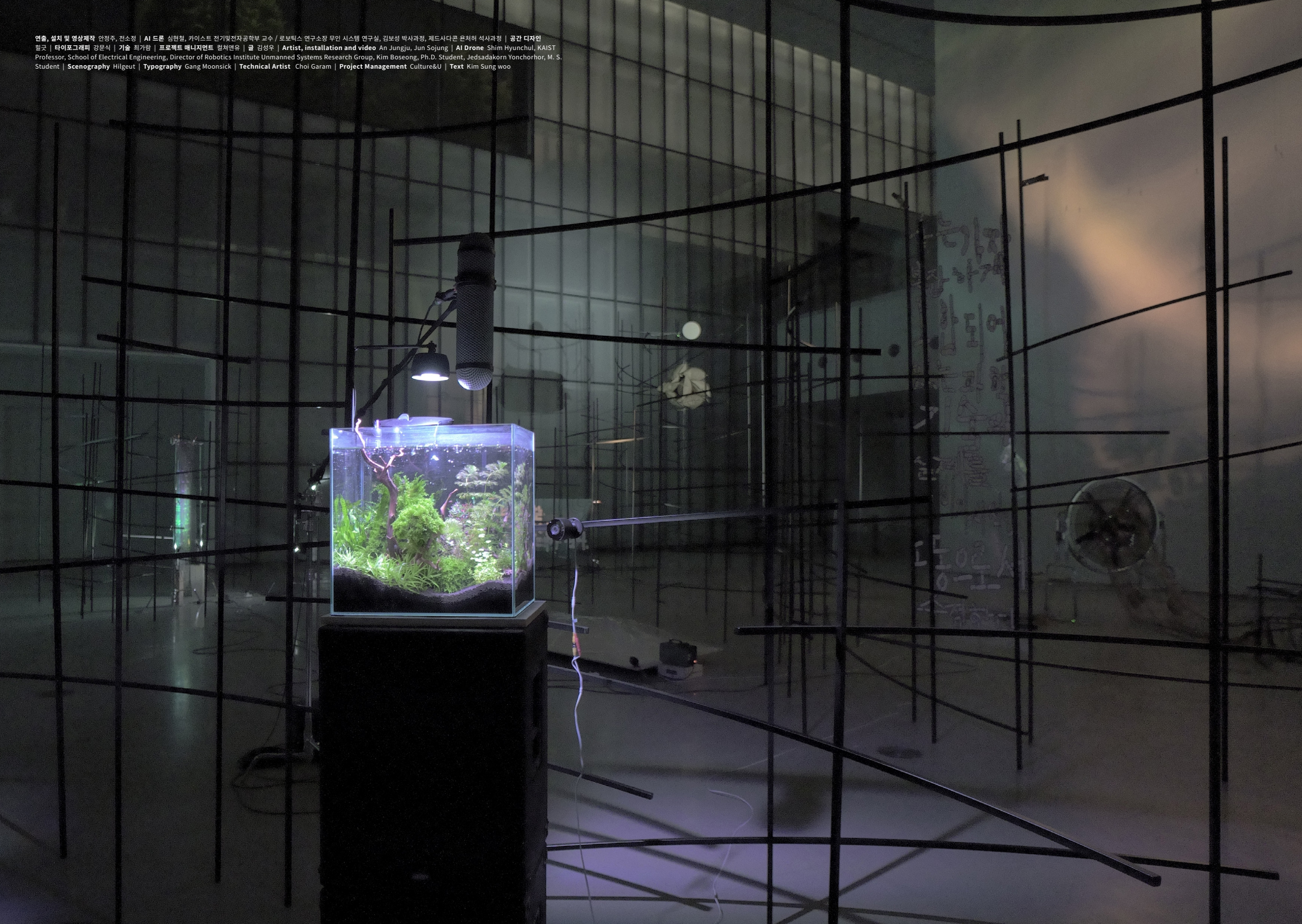
*The Ghost in the Machine* could be considered as a theatrical situation, one in which the museum becomes its stage. The scene consists of makeshift stage structures, objects, CCTVs, and an AI drone that cruises through the structure at designated time slots. These parts are similar to muscles, blood vessels, and the intestine, all of which are organs that symbolically lie beneath the skin of the body of the museum of art. Movements of these objects reveal a substance beyond the visible—swaying film strips reflect and penetrate light to create a visual illusion on the wall; the air pocket plummets to the ground and creates a resonance with the space; the fog fills up beneath the transparent skin of the sculpture lying on the floor revealing its volume; linear materials take the wind from the fan to visualize the dynamic motion; the speaker amplifies the echoing sound of oxygen that sustains a small ecosystem. In the continuous transfer of senses, these various elements construct a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 filled with a multi-sensorial experience.

The gaze of the CCTV and the AI drone observing these movements offer an experience in a different dimension. In this work, the audience inevitably is positioned as the passive other because they have to simply watch what is happening on stage from the outside. Yet, the perspective of these machines is based on different speeds, heights, and angles,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transcend the visual-perceptive capacity of humans. As a result the images recorded and transferred by these machines allows the audience to have access to the interior of the structure, otherwise unapproachable to the naked eye. As such, by extracting and transmitting images between structures and objects, the machines guide us into a world beyond the limits of recognizable time and space. On the one hand, the machines send us images pushing us to realize the perceptive limits of humans; on the other, they demand us to mobilize our dormant senses to join the race on a newly paved, unpredictable path.

(AI 드론 비행) (Fri.) May 14 – (Sat.) June 12, 2021  
14:00 – 18:00 (Tue., Thu., Fri.) Starts on every half-hour  
14:00 – 21:00 (Wed., Sat.) Starts on every half-hour  
Flight time | Around 8 minutes



연출, 설치 및 영상제작 이정주, 진소정 | AI 드론 심현철,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 로보틱스 연구소장 무인 시스템 연구실, 김보성 박사과정, 제트사다론 윤치하 석사과정 | 공간 디자인  
필곳 | 타이포그래피 강문식 | 기술 최가람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협치연유 | 글 김성우 | Artist, installation and video An Jungju, Jun Sojung | AI Drone Shim Hyuncheul, KAIST  
Professor,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Director of Robotics Institute Unmanned Systems Research Group, Kim Boseong, Ph.D. Student, Jedsadakorn Yonchorhor, M. S.  
Student | Scenography Hilgeut | Typography Gang Moonsick | Technical Artist Choi Garam | Project Management Culture&U | Text Kim Sung woo





## 김치앤칩스

〈해일로〉 미술관마당 | 2021. 6. 11.(금) – 9. 24.(금)  
〈응시〉 프로젝트 갤러리 | 2021. 6. 29.(화) – 8. 8.(일)

김치앤칩스는 다양한 재료, 여러 기술, 자연현상과 과학기술 등 물질과 비물질을 소재로 삼고,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을 예술적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디지털 예술을 전공한 손미미와 물리학을 전공한 엘리엇 우즈(Elliot Woods)가 2009년에 결성했고, “Drawing in the air (허공에 그리기)” 개념 아래 질량,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고 제한과 형식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라이트 베리어 세 번째 에디션 *Light Barrier Third Edition*〉으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상(Prix Ars Electronica)에서 특별상(Award of Distinction, 2017)을 수상했고, 미디어 건축 비엔날레(Media Architecture Biennale, 2014)에서 미디어아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독일의 예술과 매체기술센터(ZKM, Center for Art and Media)의 30주년 기획전 〈네거티브 스페이스 *Negative Space*〉(2019)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 Kimchi and Chips

*HaLo* Museum Madang | (Fri.) June 11 – (Fri.) September 24, 2021  
Gaze Project Gallery | (Tue.) June 29 – (Sun.) August 8, 2021

Kimchi and Chips work with material and immaterial subjects—various ingredients, technology, and nature—deriving themes from the complex phenomena occurring at the border of such subjects. Their practice begins at the recognition that the arts, sciences and philosophy are not distant disciplines, but act as alternative maps onto the same territory. Kimchi and Chips was founded in 2009 by Son Mimi, who studied visual art, and Elliot Woods, who studied physics. With the concept of “drawing in the air,” the duo studies into mass, time, and space, creating images that have no limits or concrete forms. In 2017, the duo won the Award of Distinction at the Prix Ars Electronica with their production *Light Barrier Third Edition*(2016) and won the Spatial Media Art at the Media Architecture Biennale in 2014. The artists have taken part in major exhibitions, such as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ZKM(Center for Art and Media) titled as *Negative Space*(2019).

## 〈해일로〉

2018, 99개의 로보틱 거울모듈, 미스트, 태양, 바람,  
18,500 × 4,800 × 8,100mm.

이번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 프로그램 중 유일한 구작인 〈해일로〉는 김치앤칩스의 실천적 개념 “Drawing in the air”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태양을 기계와 자연으로 시각화한 작품으로 야외 공간인 미술관 마당에 설치된다.

태양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99개의 로보틱 거울들이 물안개가 고인 허공으로 태양빛을 반사한다. 하나의 태양과 반사된 99가닥의 태양빛줄기는 허공에 원을 그리며 또 다른 태양을 우리 눈앞에 초대한다. 김치앤칩스의 일련의 작업들이 철저한 계산과 제어에 의해 구현되었다면 〈해일로〉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순환 안에서 자연, 기술 그리고 사람의 조우를 통해 발현된다. 태양과 바람, 관객의 기다림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 작품은 우리가 제어하고 닿을 수 없는 범주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기술의 역할과 한계를 고민하게 해준다. 날씨와 바람처럼 인간에게 무심한 혼돈이 만들어내는 찰나의 후광은 일상적 관계를 구성하는 시간적 질서를 방해하고, 반복되나 결코 동일하지 않는 자연-기술의 이 해프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작가는 제작을 위해 재료공학, 로봇틱스, 수학과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진행했고, 태양을 추적하고 한 지점으로 빛을 모으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한 오픈소스 솔라팜 시스템을 개발했다. 2년간의 개발과 제작 기간을 거친 후 2018년 6월 런던의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에서 처음 전시했다.

## *HaLo*

2018, robotic mirrors, mist, sun, wind,  
18,500 × 4,800 × 8,100mm.

The only existing work to be presented at *MMCA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HaLo* is a work that most dramatically expresses the concept of “drawing in the air,” a key idea in the practice of Kimchi and Chips. To be installed in Museum Madang, the work visualizes the sun through machines and nature.

Ninety-nine robotic mirrors move throughout the day to follow the sun, each emitting a beam of sunlight into a cloud of water mist. The sun and 99 beams of sunlight draw a bright circle in the air, inviting the sun before our eyes. While previous works of the duo were based on meticulous calculation and perfect control, *HaLo* manifests itself within the circulation of coincidence and inevitability through an encounter with nature, technology, and humans. Dependent entirely on the presence of the sun, wind, and the audience's patience for its completion, the work allows us to explore entities beyond our control and reach and contemplate on the role and the limitation of technology. The temporal order that governs our everyday relations to the city is disrupted by the derivation of *HaLo*, which arrives ephemerally and unpredictably, unscheduled by the chaos of the wind and the weather and indifferent to human actions. The repetitive but never identical happenings of this nature-technology collaboration enriches our lives.

The artists collaborated with various fields for the production of *HaLo*, including material engineering, robotics, mathematics, and astronomy. They developed an open source solar farm system based on machine learning to track the sun and to calibrate the sunlight to a single point. After two year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the work was first presented at Somerset House London in June 2018.



Image © Peter Macdiarmid





## 〈응시〉

2021, 전면 실버링 평면 거울, 스튜어트 플랫폼,  
LED조명, 사운드시스템, 공기청정시스템.

이번 전시에 〈해일로〉와 함께 선보이는 〈응시〉는 관객을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를 응시하는 주체이자 자기-이미지의 응시 대상 그 사이를 끝없이 왕복하게 해준다. 김치앤칩스는 빛의 무한한 진행이 만들어내는 효과와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오래된 매체이자, 주체 형성의 장치인 ‘거울’을 통해 증폭하려고 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판 후면을 알루미늄으로 씌워 대량생산하는 거울로 빛의 굴절로 인한 이미지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반사의 수가 많아지면 왜곡 또한 증폭되어 실물과 큰 괴리가 생긴다. 원본과 반사-이미지 사이 차이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재’에 근접한 자신을 응시하기 위해서 작가는 머신 비전(Machine Vision)을 이용해 평탄도를 측정하고 표면을 수차례 갈고 연마하여 매우 평탄한 유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유리판 전면을 은도금(silvering)하여 빛의 굴절이 거의 없이 실제 형태와 가까운 상을 반사하는 거울(Front Silvered Mirror) 장치를 제작했다.

로보틱 플랫폼에 의해 움직이는 두 대형 전면 거울과 빛의 개입이 만드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 안에서 관객은 찰나의 시차를 두고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나와 응시를 교환한다. 관객은 응시의 주체와 대상 사이를, 주인공과 관찰자의 시점 사이를, 찰나와 무한대의 시차 사이를 오가며 낯선 자아 혹은 자기-이미지를 만난다. 무한한 복제(double)를 경험하게 될 전시장은 명상/자기성찰의 공간이자, 동시에 히스테리/자기 분열의 장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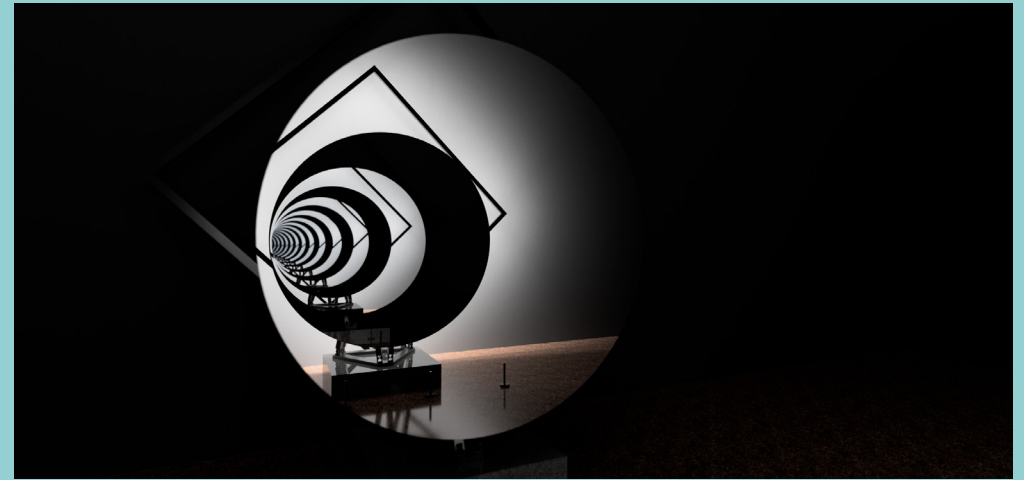
## Gaze

2021, front silvered flat mirror,  
stewart platform, LED, ventilation system.

As part of this exhibition, *Gaze* wi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Halo*. The work allows the audience to endlessly oscillate between the subject gazing at oneself and the object of the gaze—one's self-image. Kimchi and Chips pays close attention to the effects and phenomena created by the infinite progression of light, and attempts to amplify such effect through a “mirror,” an ancient image-producing medium and an apparatus for constructing subjectivity.

The mirrors we use in our daily lives are mass-produced by covering the back side with aluminum, which inevitably yields to a distortion in the image due to light refraction. Such distortion is amplified when the number of reflections increases, leading to a big gap between the actual object and its reflected image. To be able to gaze at oneself ever closer to “reality” by creating a reflection image that is no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he artists have invented a radically flat glass panel by using Machine Vision that measures the flatness and by repeatedly grinding the surface. Also, by silvering the frontal surface of this glass panel, the duo produced an apparatus called Front Silvered Mirror, which minimizes light refraction and creates a reflection that is almost identical to the actual object.

While two of these frontal mirrors move on a robotic platform, light intervenes, and time and space start to expand. The audience exchanges gazes with one's multiple self, which is reflected in the mirror in a mere second.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the gaze, between the protagonist and the observer, between a fraction of a second and an infinite gap in time, the audience encounters an unfamiliar self, or rather an unfamiliar self-image. Offering an experience of infinite doubling, the space will be both a place of meditation and self-reflection and a place of hysteria and schizophrenia.



### 〈해일로 Halo〉

작가 김치앤칩스 | 디자인 및 기술 김치앤칩스 | 프로덕션 C2 아테크놀로지 | 제작 스튜디오성신 | 프로듀서 이소영 | 디자이너 양윤아 | 기술 보조 나영일, 이규진 | 프로덕션 보조 추가 예정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머셋하우스 | 제작지원 서머셋하우스, 주영한국문화원, 로보티즈, 임프라바블월드UK | Artist Kimchi and Chips | Design and Technology Kimchi and Chips | Production C2 Artechnolozly | Fabrication Studio Sungshin | Producer Lee Soyoung | Designer Yang Yoona | Technical assistant Na Youngil, Lee Jin | Co-commissioner Arts Council Korea, Gwangju Design Biennale, Somerset House | Project supporters Korean Cultural Centre UK, ROBOTIS, Improbable Worlds Ltd UK

### 〈응시 Gaze〉

작가 김치앤칩스 | 디자인 및 기술 김치앤칩스 | 제작, 프로덕션 C2 아테크놀로지 | 기술 보조 나영일, 이규진 | Artist Kimchi and Chips | Design and Technology Kimchi and Chips | Production, Fabrication C2 Artechnolozly | Technical assistant Na Youngil, Lee Jin



## 정금형

프로젝트 갤러리 | 2021. 8. – 9.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정금형은 본인의 몸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 수집한 다양한 인체 모형, 각종 기구와 도구 등의 사물에 자신의 관심사를 투영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최근에는 공연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테이트 모던, 쿤스트할레 바젤 등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 〈장난감 프로토타입〉

2021, 설치, 로봇조각, 다채널비디오, 혼합재료, 가변크기.

〈장난감 프로토타입〉은 2019년 쿤스트할레 바젤 개인전에서 선보인 첫 번째 로봇적 조각 작품 〈홈메이드 알씨 토이 *Homemade RC Toy*〉에서 시작된 로봇 우화 내러티브의 연속적인 발전이다. 매 단계 진화하는 정금형의 ‘장난감’은 비전문가인 작가가 스스로 공부하며 직접 제작하는 DIY 로봇이다. 정금형의 장난감 설계 계획은 작가의 비전문성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지만 또 의외로 그럴듯하게 해결되며, 그로 인해 완성된 로봇들은 계획하지 않은 서투른 동작으로 꿈틀꿈틀 움직인다. 본 전시에서는 로봇 조각과 더불어 정금형과 로봇 간의 관계를 포착한 제작 과정의 영상을 함께 송출한다.

## Jeong Geumhyung

Project Gallery | August – September 2021  
(Exact dates to be announced)

Jeong Geumhyung has created works in which she takes her own body as a medium to project her desires onto various collected objects, such as dummies, equipment, and apparatuses. Her works are presented in performing arts festivals as well as in major art museums, such as Tate Modern and Kunsthalle Basel.

### *Toy Prototype*

2021, installation, robot installation, multi channel video,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Toy Prototype* is part of a developing series of a robotic allegory that began with the first robotic sculpture, *Homemade RC Toy*, conceived for the solo exhibition at Kunsthalle Basel in 2019. Evolving at every stage, Jeong Geumhyung's “toys” are DIY robots built by the artist herself, an amateur who has to learn mechanisms, electronic circuits, and programming step by step. Although Jeong's plan to create a “toy” stumbles into problem after problem due to a lack of expertise, brilliant solutions are found and the completed robots wiggle clumsily, making unintended movements. For this exhibition, the robotic sculptures will be presented alongside video archives of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cap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 Geumhyung, and her robots.

## 후니다 김

프로젝트 갤러리 | 2021. 10. – 12.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후니다 김은 어느덧 (사회를 넘어 자연까지도 포괄 한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일부가 된 테크놀로지와 생태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인간의 지각 능력과 감수성으로는 이 변화의 속도와 정보의 양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후니다 김은 감각을 기민하게 만드는 ‘환경 인지 장치’를 제작하고, 공간을 소조하며, 공간을 작곡해오고 있다.

###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

2021, 퍼포먼스, 설치, 혼합재료, 가변크기.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는 환경을 읽어내는 새로운 감각을 실험한다. 인간의 눈과 달리, 자율 주행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라이더(LiDAR)와 비전 센서는 360도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라이더를 환경 인지 장치인 ‘데이터스케이프’의 입력장치로 사용한다. 몸에 임플란트된 ‘데이터 스케이프’는 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인지할 수 없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신체감각 중 가장 딜레이가 적은 ‘기계적 감각’으로도 번역하여 감각하고 체화하는 감수성의 확장을 시도한다.

## Hoonida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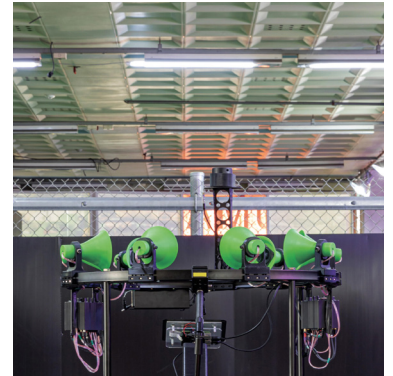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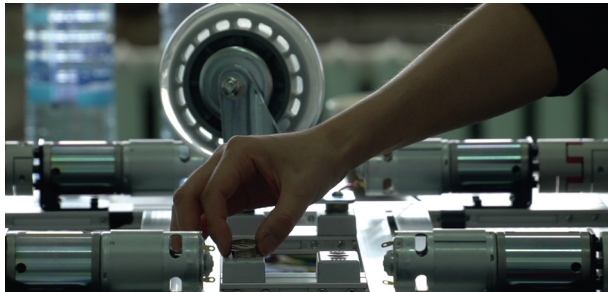
Project Gallery | October – December 2021  
(Exact dates to be announced)

Hoonida Kim has an interest in ecological changes as well as technology, which has come to be a part of ecology, not only affecting society but also nature. Acknowledging the difficulty in tracking the speed of change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just by using human perceptive capacities and sensibilities, Hoonida Kim produces “environmental recognition apparatus” that enhance our senses, models the air, and composes the space.

### *Landscape being Decoded*

2021, performance, installation,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Landscape being Decoded* experiments with a new sensation to read the environment. Unlike human eyes, the eyes of a self-driving car—LiDAR technology and vision sensors—perceive the space in 360 degrees. The work uses LiDAR as an input device for the environmental recognition apparatus, “Datascape.” The “Datascape” implanted in the body makes it possible for viewers to recognize things existing in the same space that were previously unrecognizable. As an attempt to embody the expanded sensitivity, this perception will be translated into the “mechanical sense,” which is considered to have the shortest delay among all human senses.





## 권하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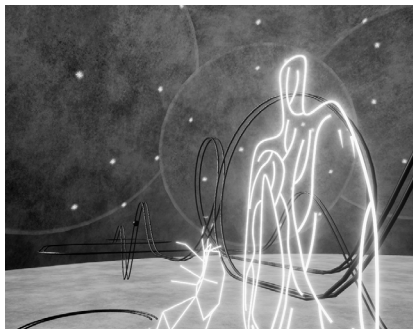
프로젝트 갤러리 | 2021. 2. 12.(금) – 3. 28.(일)

권하윤은 집단의 역사나 개별적인 누군가의 경험과 기억을 3D 애니메이션이나 VR 영상, 사운드 설치 등으로 재구성하여 관객에게 새롭게 창조된 픽션을 전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역사와 기억 사이의 간극, 현실과 허구의 조건, 영토와 경계의 관계 등을 탐구하고 있다.

### 〈잠재적인 마법의 순간을 위한 XX번째 시도〉

2021, 설치, 퍼포먼스, 가상현실 | 35분.

〈잠재적인 마법의 순간을 위한 XX 번째 시도〉에서 세상의 재구성이란 ‘창조 행위’에 관한 관심이며, 세계 간의 경계나 관계를 다룬다. 참여형 퍼포먼스와 가상현실이 만나는 실험적인 이번 작업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했었던 과거의 작업과는 다르게, 우연적인 요소들로 인해 작품의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그 조건을 질문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허구인 가상현실 (또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조건 말이다. 구성된 세계에 관한 작가의 이러한 관심은 발전되어 다른 두 세계의 중첩이나 어긋남을 실험해본다. 두 세계는 연결되고 연장되어 펼쳐진다. 이 교차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몸’이다.



## Kwon Hay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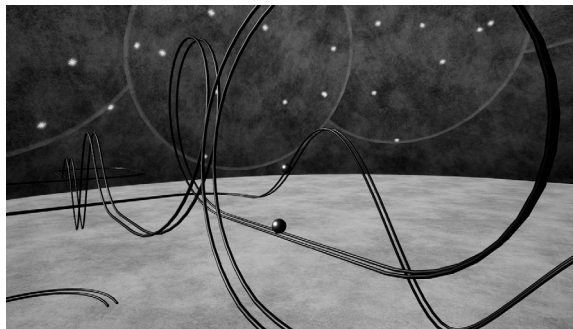
Project Gallery | (Fri.) February 12 – (Sun.) March 28, 2021

Kwon reconstructs collective histories or individual experiences and memories to deliver a newly created fiction in the form of 3D animation, VR, or sound installation. She investigates the chasm between history and memory, the conditions of reality and fi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itories and borders.

### *XXth Attempt towards the Potential of Magic*

2021, installation, performance, VR | 35 min.

The reconstruction of a world in *XXth Attempt towards the Potential of Magic* is based on Kwon Hayoun's interest in the act of creation. The work takes this interest further to touch upon the issue of borders and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worlds. Unlike previous works, where every factor was completely controlled, this experiment to bring together a participatory performance and virtual reality will bear the risk of failing to yield a perfect outcome due to its inherent chance elements. The work thereby aims to create a different world and question its conditions: the condition where an artificially created fiction—a virtual reality (or possibly our reality)—can become a reality in and of itself. The artist's interest in constructed worlds has evolved into an experiment of bringing together two different worlds to overlap or be out of joint. The two worlds will be connected and extended. There are a few critical elements in constructing this cross-world, the most important being the body.



## 서현석

5전시실 | 2021. 3. 16.(화) – 4. 16.(금)

서현석은 모더니즘 건축, 극장, 영화 등 21세기 일상을 지배하는 감각과 사유방식에 이르는 20세기의 전환의 계기들을 탐색해왔다. ‘시어터’라는 근대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질문하는 퍼포먼스 작품들은 허구와 일상적 현실의 경계에서 감각의 주체인 관람객이 즉각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개입한다.

### 〈X(무심한 연극)〉

2021, 퍼포먼스, 가상현실 | 40분.

칸트는 인간의 감각이 이를 수 없는 대상을 일컬으며 ‘X’라는 기호를 붙인다. ‘X’는 인간이 체험하고 사유하는 현상 너머에 도사린다. 감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언어로 표상하는 것은 현상과 현상 너머 사이의 절대적 간극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칸트의 지면에 단호하게 각인된 ‘X’라는 표식은 잉크의 다른 흔적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의 빗장처럼 이면에 대한 상상을 일축하고 금지한다. 상상될 수 없는 것은 관념으로 현현할 뿐이다.

VR과 장소특정성을 결합한 참여형 퍼포먼스 〈X(무심한 연극)〉은 실제 장소와 환영의 사이를 탐색하는 여정으로 펼쳐진다. 환영적 이미지는 직관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을 표상할 수 없다. 금지된 대상이 더욱 아득해지는 환영의 미로 속에서 X의 빈자리는 모순이 대체한다. X가 관념화되는 것은 부정적 직관을 통해서다.



## Seo Hyun-Suk

Gallery 5 | (Tue.) March 16 – (Fri.) April 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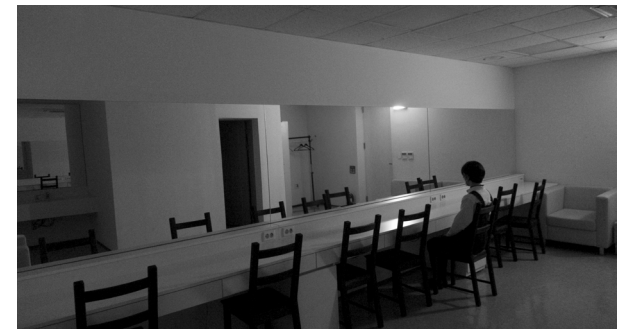
Seo Hyun-Suk has been investigating the sensory apparatuses of the 20th century that led to dominate the way we think of and perceive the world today. His performance projects question and reconfigure “theater” by intervening in the ways the audience interacts with the immediate, off-stage reality.

### *X(Indifferent Spectacle)*

2021, performance, VR | 40 min.

That which lies beyond the senses bears the mark of “X” in Immanuel Kant's writings. This “X” lurks behind the phenomena experienced and thought about by humans, demarcating the absolute fissure that separates itself from the nameable. The artless ink stain prohibits imagination and signification, properly distancing itself from all other words on the inquisitive philosopher's pages. We only get at it as a concept.

X, a participatory performance combined with VR, unfolds as a stroll around the crevices between the actual place and its illusory representations. Illusory images fail to represent a territory unreachable by intuition. Contradiction sets in to host negative intuition as the ironic means to the conceptualize X.





예약 안내

- 모든 퍼포먼스와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  
홈페이지 사전 예매 후 공연 당일 현장에서  
미술관 통합관람권 구매

**퍼포먼스**  
홈페이지 <전시관람 예약> 선택 후  
<다원예술 2021 프로그램> 예약에서 진행

**전시**  
홈페이지 <전시관람 예약> 선택 후  
<[서울] 전시관람 예약> 예약에서 진행

- 퍼포먼스 1일 전 자정까지 예약 및 취소 가능
- 퍼포먼스는 만 15세 미만 관람 불가
-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mmca.go.kr  
multi-verse.kr

Information on Reservations

-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al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Make a reservation on the MMCA  
website and purchase a museum entrance ticket  
at the museum on the day of the event.

**Performance Reservation**  
[Performing Arts 2021 Program] Booking

**Exhibition Reservation**  
[Seoul] Exhibition Booking

- Reservations and cancellations can be made  
by midnight, one day before the performance.
- Audiences under age 15 will not be admitted.
- The dates and venues of the program may  
change depending on COVID-19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MMCA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은 하나의 관점, 정형화된 형식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예술에서의 초과와 불일치를 드러내는 과감한 시도이다. 동시대예술이  
표출하는 이 복잡한 양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감각으로  
예술과 사회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은 자유롭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날카롭게 탐구하는 가능성의 장소이다.

MMCA Performing Arts

MMCA Performing Arts is a bold attempt to reveal the excess and  
discord in the arts that can no longer be explained nor defined through  
a single perspective or a standardized form. The complex modalities  
of contemporary art call on us to depart from the familiar sphere  
and perceive our society and arts with a radically different sensibility.  
The MMCA Performing Arts will act as a space of possibilities, open for  
free challenges, continuous questions, and critical explorations.

※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는 <2020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MMCA Performing Arts 2021: Multiverse was supported from 2020 National Expenditure to build Immersive Content Zones at Public Cultural Facilities.



## 관람시간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입장료

서울관 통합 관람권 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시~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3,000원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 Opening Hours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won

Under 24 or over 65: Free

Every Wed & Sat 18:00~21:00: Free

##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3,000won per hour

##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National Museum of

###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http://www.mmca.go.kr)

[newsletter.mmca.go.kr](mailto:newsletter.mmca.go.kr)

[twitter.com/mmca\\_korea](https://twitter.com/mmca_korea)

[facebook.com/mmca\\_korea](https://facebook.com/mmca_korea)

[instagram.com/mmca\\_korea](https://instagram.com/mmca_korea)

[youtube.com/mmca\\_korea](https://youtube.com/mmca_korea)

[tv.naver.com/mmca](https://tv.naver.com/mmca)